

치료의 끝, 새로운 시작: 당신의 권리, 장애급여 완전정복 가이드

이 여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.



여정의 시작: 치료가 끝났지만, 끝이 아닐 때

산재 치료가 완전히 끝났지만(**치유**),
몸에 영구적인 불편함(**장해**)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.
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.
과거의 사고가 아닌, 앞으로의 삶을 위한
정당한 보상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.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



치유(治癒)란?

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,
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
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.



장해(障害)란?

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
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
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.

당신의 목적지: 장해급여란 무엇인가?



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
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해,
상실되거나 감소된 노동능력만큼
국가가 보상하는 보험급여입니다.

이로자는 위은
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마친 후
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근로자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7조, 제112조

언제까지
신청해야 하나요?

5년 이내



법이 개정되어
3년에서 5년으로
늘어났지만,
기억이 생생할 때
바로 신청하는 것이
가장 좋습니다.

여정의 지도: 14등급 장해급여의 세계

연금 전용 구간		선택의 기로	일시금 전용 구간
1-3급 (노동력 완전 상실)		4-7급 (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)	8-14급
장해등급	장해보상연금 (평균임금 기준)	장해보상일시금 (평균임금 기준)	
제1급	329일분	1,474일분	
제2급	291일분	1,309일분	
제3급	257일분	1,155일분	
제4급	224일분	1,012일분	
제5급	193일분	869일분	
제6급	164일분	737일분	
제7급	138일분	616일분	
제8급	-	495일분	
제9급	-	385일분	
제10급	-	227일분	
제12급	-	154일분	
제13급	-	99일분	
제14급	-	55일분	

가장 중요한 선택: 연금과 일시금, 무엇이 유리할까? (4급~7급 대상)



장해보상연금 (Pension)

- 매달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
-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
- **핵심: 대부분의 경우, 총 수령액이 일시금보다 훨씬 많아 유리합니다.**
- **Tip:** 신청 시 연금의 최초 1~2년분(1~3급은 1~4년분)의 절반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(선급금 제도).



장해보상일시금 (Lump Sum)

- 한 번에 큰 목돈 수령
-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

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고려한다면, 연금 선택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.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.

당신의 가장 중요한 동료: 주치의와 소통하는 법

“의사 선생님의 ‘**각도기**’가 **돈**입니다.”

장해 등급은 관절이 얼마나 굽혀지지 않는지(운동 각도),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등 객관적인 ‘숫자’와 ‘기록’으로 결정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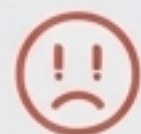


주치의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:

"선생님, 이제 치료 종결하고 장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. 제 팔(또는 다친 부위)이 예전보다 절반도 안 굽혀지는데, **장해진단서에 운동 각도랑 신경 손상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측정해서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?**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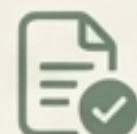
장해급여 청구서의 앞면은 환자가, 뒷면의 **장해진단서**는 주치의가 작성합니다.

승리를 위한 도구: 핵심 증거자료 완벽 준비 가이드



주관적인 호소

나쁜 예: “비 오면 쑤시고 너무 아파요.”
(객관적 증거 없음)



객관적인 증거

좋은 예: “신경 손상으로 찌릿합니다”를
증명하기 위해 **[근전도 검사지]**를 첨부함.



핵심: 산재는 ‘통증’ 그 자체보다, 통증의 원인이 되는 **신경 손상**
등이 검사로 명확히 보여야 등급을 인정합니다.

핵심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(Essential Documents Checklist)

- ✓ **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:**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이 담긴 원본
- ✓ **모든 영상 자료 CD:** 수술 전후, 치료 종결 시점의 MRI, CT, X-ray 등 모든 CD
- ✓ **객관적 검사 결과지:** 근전도(EMG), 신경전도(NCV) 검사 등 신경 손상 입증 자료
- ✓ **기타 진료기록부:**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의료 기록

서류 제출, 그리고 마지막 관문: 공단 출석 심사



1 준비된 모든 서류를 관할
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.
(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'를
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)

2 서류 제출 후, 공단에서 지정한 날짜에
직접 출석하여 공단 자문의사의 심사를
받아야 최종 등급이 확정됩니다.
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.

Q. 주치의는 7급이라는데, 공단은 9급이 나왔어요. 왜죠?

A. 매우 흔한 일입니다.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지만, 공단 자문의사는 대한의학회 등 더 엄격하고
통일된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기 때문입니다. 주치의 소견보다 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절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.

고급 전략 ①: 장애가 여러 개일 때 (조정)

신체에 서로 다른 계열의 장애가 2개 이상 남은 경우,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Before



팔 장애 9급

+



다리 장애 12급

조정 적용

Af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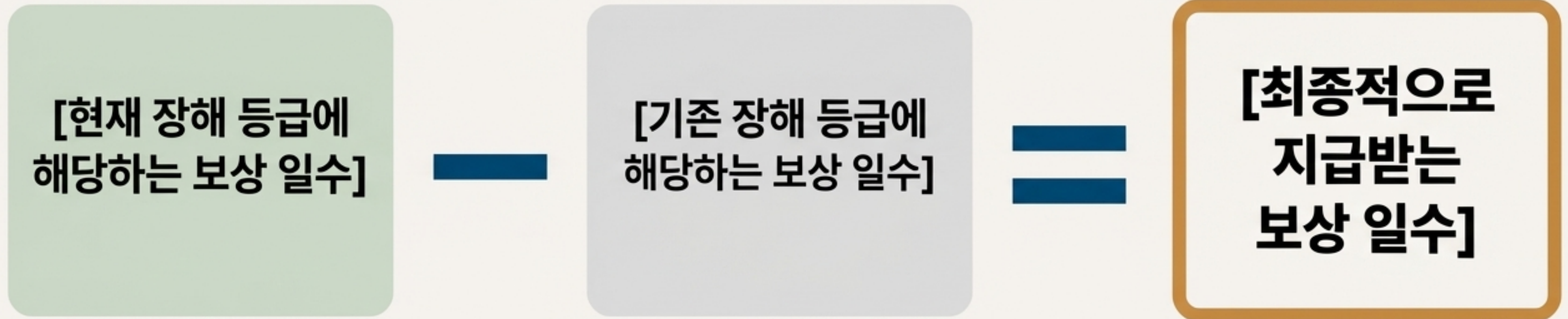
최종 장애 **8급**으로 상향!

정리

- 13급 이상 장애가 2개 이상 → **1등급 상향**
- 8급 이상 장애가 2개 이상 → **2등급 상향**
- 5급 이상 장애가 2개 이상 → **3등급 상향**

고급 전략 ②: 기존 장애가 악화되었을 때 (가중)

과거의 장애(산재 여부 무관)가 있던 신체 부위를 이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 더 다쳐 장애 상태가 악화된 경우.



Purpose

이중 보상을 방지하고, 이번 재해로 인해 '악화된 만큼'을 정확히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.

최종 결정 이후: 당신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

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.



퇴직 후에도 소멸 불가

회사를 그만두더라도
장해급여 수급권은
사라지지 않습니다.



압류 및 담보 제공 금지

당신의 장해급여는 다른 사람이
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.
(보험급여수급계좌 입금액 전액 보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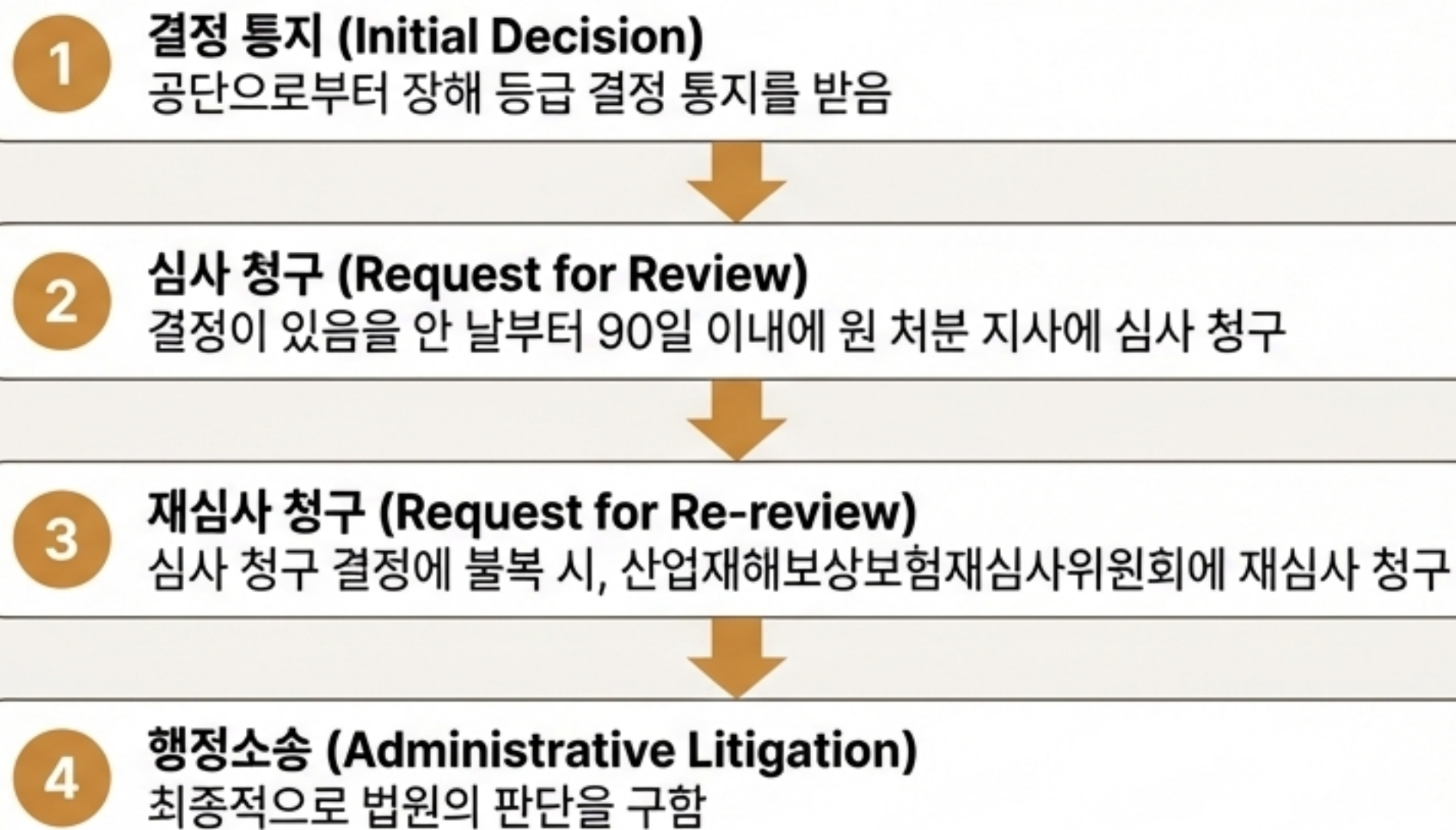
공과금 면제

지급된 장해급여에 대해서는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
부과되지 않습니다.

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?

근로복지공단의 장애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,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The Path Forward



각 단계는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(노무사 등)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성공적인 여정을 위한 3가지 최종 원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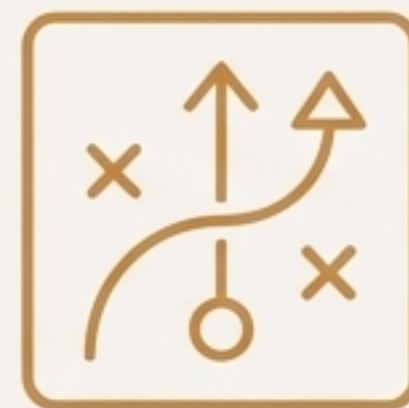
1 증거가 전부입니다.

당신의 아픔을 객관적인 '숫자(각도)'와 '영상(MRI)'으로 증명하십시오.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



2 주치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.

정확한 상태가 진단서에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, 상세한 기록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.



3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해하십시오.

연금과 일시금의 장단점을 이해하고, 장애가 여러 개일 때의 '조정' 규정 등을 활용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드십시오.